

사진으로 고양되는 휴머니즘의 미학

세번째作品集 「來世를 기다리는 사람들」 펴낸 尹胄榮씨

사진작가 尹胄榮씨의 새作品集 「來世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제목이 풍기는 종교적 의미를 무시해버리고 사진속에 실제로 재현된 산문적 현실만을 직시한다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 사진집에는 늙고 병들어 머잖아 세상을 떠날 नेपाल의 노인들이 집을 나와 집단으로 거주하는 한 사회복지센터에서의 '죽음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책은, 그러나 불안이나 초조, 비탄이나 공포 같은 정조와 무관하다. 삶의 막차를 탄 채 이승과 저승의 중간역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재현해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 책은 어떤 침착함과 안온함의 정조가 주조음을 이루고 있다.

이 책에 실린 사진들의 주인공, 곧 नेपाल의 늙은 힌두교도들은 죽음이 아니라 '내세'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魂의 곁'을 바꿔입고 영생의 길로 가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느끼면 살던 집을 나와 '아슈람'이란 곳에서 생을 마치게 되기를 바란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 책에 붙여진 영문제목 '永眠으로 가는 문(The Gate to Repose)'을 넘어서기 직전의 짧은 삶을 산다. 죽음이 아닌 내세, 그 내세를 기다리는 삶을 산다. 그것은 삶의 모습을 작가는 이렇게 전한다.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항상 신 앞에서 기도하였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이면 의례 정문 옆의 뒷마루에 모여 손뼉에 맞추어 합창을 했다. 나는 그 합창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 무엇을 노래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짙은 새벽안개를 뚫고 멀리멀리 퍼져나갔던 그 애조의 멜로디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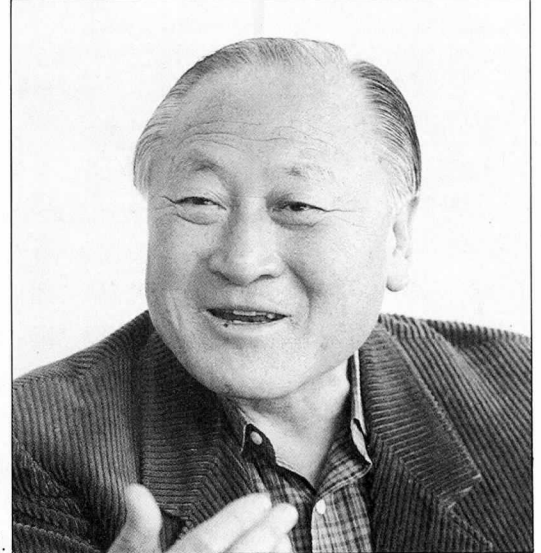
그같은 삶의 모습을 이 책 「내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 82점의 흑백사진을 통해 간간한 감동으로 전해 준다. 그것이 감동적인 까닭은 죽음을 제 삶의 일부로 겸허히 껴안는 사람들의 마음이 작가의 '카메라 아이'에 의해 포착돼 있어서이다. 작가 윤주영씨는 "인간의 마음도 사진으로 찍히더라"고 감히 말한다.

사실 이번의 「내세를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모두 세권의作品集으로 정리될 수 있는 윤주영씨의 작업은 줄곧 인간의 마음을 찍는 일에 바쳐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1987)과 「다시 만난 사람들」(1988)의 경우도 그런 점에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그의 일관된 사진적 관심을 반영한다. 그가 펴낸作品集 세권의 제목이 모두 '사람들'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누구든지 장기로 삼는 분야가 있겠지만, 제 경우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이 각별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현대물질문명에 물들지 않은, 가장 순수한 인간의 원초성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겐 거의 저절로 렌즈가 향해지죠. 그런 사람들의 얼굴과 그 얼굴에 드러나는 마음은 세계 일종의 향수 같은 것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의 사진은 정물로서 추상화된 '인물'보다는 구체적인 얼굴을 지닌 '사람'을 주로 다룬다. 그것도, 이번 사진집의 무대가 됐던 नेपाल을 비롯해 인도, 파키스탄, 터키,

이번作品集까지 모두 세권으로 정리되는 윤주영씨의 작업은 줄곧 인간의 마음을 찍는 일에 바쳐져 왔다. 그의 일관된 사진적 관심은 정물로 추상화된 '인물'보다는 구체적인 얼굴을 지닌 '사람'들에 집중돼 있다. 먼 고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의 카메라는 포착해낸다.



윤주영씨.

모로코, 튀니지 등 문명의 오지에서 사는 사람들을 주로 다룬다.

"주위 분들로부터 가끔 당신은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얼굴만 찍느냐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옛 시골장터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그리운 얼굴들을 이제는 히말라야고 원이나 안데스산록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인류문명의 발상지였지만, 이제 그 영화가 역사 속에 묻힌 지역들에서 저는 가장 순수한 인간들의 얼굴을 만납니다. 예전에 내가 보았고 익숙해져 있던 얼굴들을 근대화된 한국에서가 아니라 먼 고대의 삶을 사는 지역에서 비로소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한국인의 얼굴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얼마전만 해도 택시 일원의 탄광촌 사람들을 사진에

담는 촬영여행을 다녀왔고, 울거울엔 울릉도의 눈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을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사진적 관심은 역사의 얼룩이나 근대화된 생활의 때로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같은 자신의 사진적 관심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윤주영씨는 '휴머니즘'이란 한마디로 설명한다.

"제 생각에 사진이란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가 되어야 그 참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메시지는 휴머니즘이죠. 그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즉 메시지를 담는 미디어로서 제 사진이 갖는 의미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폭적으로 자신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포토저널리즘의 입장에서 휴머니즘의 가치를

하늘땅 시선·1

「키플링 시선집」

루드야드 키플링 지음
서강목 옮김

신국판 / 174쪽 / 값 2,500원

“나는 우리 인생 이야기를 써 왔다.”

하늘땅 소설선·1

원명희 장편소설

바늘만지

연속중판

3대째 철거민 빈민작가 원명희가
눈물의 땅에 펜을 꽂고 질게 써 내려간
일천육백 매의 빈민송가!! —
“엄마, 우린 영세민이 아냐, 그렇지?”

신국판 / 312쪽 / 값 4,000원

하늘땅 신서·1

감독 조영환

고백

소련의 급진개혁과 보리스 옐친의 충격적 수기

신국판 / 272쪽 / 값 3,800원

하늘땅 신서·2

번역 김정섭 지음/문태학 정지학 옮김

빌리 브란트 - 동방정책과 독일의 재통합

신국판 / 541쪽 / 값 6,800원

하늘땅 신서·3

바츨라프 하벨 지음/이상영 옮김

인간에 대한 예의

반체제 극작가로서 89년까지의 체코 민주화운동은 주도한 바 있는 현직 체코 대통령의 수필모음!

신국판 / 240쪽 / 값 3,500원

하늘땅 신서·4

加藤哲郎 지음/허태유 옮김

동구혁명과 사회주의

한 사회민주주의자가 체제화해 낸 세계사의 흐름

신국판 / 287쪽 / 값 4,000원

국내독점 판권계약

하늘땅



「내세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의 한 작품.

고양한다는 데 제 사진작업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같은 포토저널리즘에의 신념은 그로 하여금 이른바 '만드는 사진(메이크 픽처)'보다는 '찍는 사진(테이크 픽처)'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한다. 물론, 그라고 해서 자신의 사진작업에 대해 갈등이나 회의를 아주 안 느끼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혹은 "내가 사진을 생각하는 시각이 지나치게 정통적이어서 유연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하는 반성들을 그 역시 때때로 느낀다. 다만 스스로 좋아하고 옳다고 여기는 사진의 정도를 집요하게 추구한다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그는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보다는 "피사체를 어떻게 보느냐"는 데 사진예술의 일차적인 강조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윤주영씨의 작가적 이력은 그러나, 그의 자연인으로서의 연륜(그의 올해 나이는 62세이다)에 비할 때 매우 짧다. 사실 이전의 그는 사진작가로서보다는 칠레대사, 국회의원, 문공부장관 등을 역임한 공직자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런 그가 본격적으로 사진에 눈을 뜨는 것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치권에서 발을 빼게 되는 1979년경부터이다. 윤주영씨를 "30대의 젊은 편집국장으로서 모셔보았던" 이규태씨(조선일보 논설위원)의 표현을 따르자면, "어느날 權門을 등지고 나선 그의 어깨에는 달랑 카메라 하나만이 들려져 있을 따름이었다"는 그 '어느날'이 바로 이때이다. 물론 어릴 적에 장난삼아 카메라를 만져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때부터 비로소 사진과의 우연한 만남이 시작된다. 그 계기 또한 사소하다.

“영국정부의 초청으로 그곳을 방문하여 겪은 이야기를 기행문으로 엮어볼 생각에 거기 결들이려고 찍어두었던 사진 몇장을 귀국해서 몇몇 작가들에게 보였더니 ‘카메라아이가 좋으니 한번 본격적으로 덤벼보라’고 권유하더군요. 또, 이듬해가 칠레를 여행하면서 찍었던 사진들도 귀국길에 들른 일본에서 의외의 호평을 받아 많은 고무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해서 전혀 비체계적으로, 그리고 거의 無師獨學으로, 50대의 나이에 비로소 들어선 사진의 길은 그는 지금까지 꾸준히 걷고 있다. 왜 진작 사진을 알지 못했는가를 후회할 정도로 지난 10여년간 사진의 맛에 흠뻑 젖어 산 그는 이제 “사진으로 생계를 꾸리지는 않지만 삶의 모든 것을 사진에만 투입한다”는 점에서 엄연한 프로사진작가가 돼 있다.

그런 그의 사진에의 정열이 결실로 맺어진 것이 바로 그가 지금까지 펴낸 세권의 사진집 및 거기 실린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 몇차례의 전시회 개최이다. 전시회 가운데에는 지난 6월의 일본전이 특히 인상에 남는다는데, 「내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작품을 주로 한 이 전시회로 그는 일본사진계가 수여하는 '이나노 보상'의 제15회 수상자로 선정돼 올 12월과 내년 1월 동경과 대판에서 각각 수상작양코르 전시회를 갖는다. 외국인으로서의 첫 수상자여서 수상자 발표 당시 일본언론에서는 그의 수상을 두고 "이나노보, 바다를 건너다"라고 표현했다.

여의도의 한 빌딩 5층에 사무실을 빌어 촬영 여행을 가지 않을 때면 꼬박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윤주영씨는 일욕심이 매우 크다. 네번째 및 다섯번째 작품집이 될 「안데스의 사람들」과 「네팔점경」이 편집만을 앞두고 있는 것 외에도 과테말라에 사는 마야의 후예들을 비롯해 이집트와 중국, 베트남 등 한번 정도만 더 갔다오면 한권 분량의 사진집으로 엮어질 곳으로의 취재계획을 짜느라 몸과 마음이 다 바빠가 하면, 틈틈이 국내 곳곳으로도 촬영여행을 떠나곤 한다. “요즘의 내 하루하루는 젊은이들의 1년에 해당한다”고 말할 정도이다. 사진일이라는 것이 본래 젊은 사람에게도 힘든 중노동이지만 “사진거리만 많으면 피로한 줄도 모른다.”

윤주영씨의 그같은 '뒤늦은' 사진에의 몰두는 그로 하여금 사진을 끝없는 '歸去來'의 대상으로 여기게 한다. 10여년이 넘는 사진에의 몰입이 혹 현실로부터의 도피는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얼마전 사진이 아닌 '딴 일'을 계획하기도 했지만, 결국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18년동안의 성공적인 공직생활, 그리고 그 이전의 교수생활과 언론인생활 또한 만만치 않은 무게를 갖고 있음에도 그는 자신의 '솔잎'이 사진이라고 말한다. 이 듣기 썩 좋은 역설이야말로 그가 사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수잔 손타그의 「플라톤의 동굴에서」의 일절을 차용한다면, 이제 윤주영씨에게 있어 “오늘날 모든 것은 한장의 사진 속에서 끝나기 위해 존재한다.”

— 강철주 부장

하늘당 생활총서 1

내집마련과 투자총정보
- 내집마련 상담실편 -

정보를 알면
내집이 생긴다

한보환 지음

연속중판

“ 집 없는 설움은 겪어보지 않은 자는 모른다. 세를 올려달라는 주인의 성화, 이사의 고통, 주인이 싫어할까 봐 밤새 우는 아이를 눈물을 머금고 달래야만 하는 엄마의 모습...”

”

■ 4×6배판/144쪽/값 3,300원



김의균 지음

■ 매일경제신문 동경특파원이 쓴 신일본 경제기행

슈퍼이웃
일본이 뛰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의 보호무역장벽도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超장국의 위력 — 그 세계 최강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

모방의 천재성이 창조의 우수성을 앞질러 버리고 세계경제교과서를 만들어나가는 일본경제의 파워를 밀도 있게 파헤치는 현상 리포트 —

■ 신국판/380쪽/값 4,500원



하늘당

110-521 서울·종로구 혜화동 26-39 TEL: 764-4398, 4957/FAX: 743-0541